

새로운 문화'제' - 새로운 자보 '문화'

발신 : 위원장

날짜 : 96/8/19

들어가며

성정치 문화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이와 동시에 성정치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라 제안서를 쓴다.

우리가 현재 성정치 '운동'에 관해서 끊임없이 사고하는 와중에 우리가 주로 택하는 방법은 자보 또는 문화제이다. 그런데 우리말고도 다른 운동가들을 볼 때, '자보'에 대한 별 생각이 없고 (무작정 쓴다!)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문화제를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두 잘 알 것이다. 항상 우리들 머리 속에는 '문화제'에 대한 이미지들이 너무 확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자보(보다 일상화된 형태)와 문화제(보다 일회적인 행사의 형태)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보자.....

2학기의 성정치 문화제가 과연 일회적인 행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은 성정치 문화제를 하게 이유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했던 문화제가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어쩌면 연세대학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9개 대학에 성정치 운동을 촉발한 행사가 되었다. 성정치 운동에 있어서 문화제가 하나의 '필수적인' 것이 된 분위기이다. 문화제라는 것이 '문화'제인 만큼, 그리고 문화는 일상 그 자체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며 '성정치'라는 개념이 우리들의 일상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 방법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제를 하나의 사업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운동 방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문화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도 없진 않다.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지만 문화제라는 것은 여전히 문화'제'이다. 즉, 개막식과 폐막식이라는 시공간적 제한 속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행사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제를 치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주제를 택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하나의 행사가 끝나면 그 주제에 대한 고민이 사그라진다. 물론, 그 이후에 하는 공부에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저항점으로 만들기까지 끈질기게 이끌지는 못하는 것 같다.

'자보'라는 것은 하나의 매체인가 아니면 그 자체도 하나의 '저항적 몸부림'이 될 수 있을까?

운동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 또 한 가지의 의문이 간다. '자보'라는 것은 어느 운동을 하건 상당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의 의견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여러 의견들이 모여 서로 담론 투쟁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곳이다. 이것도 모든 운동에 있어서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운동의 방법이며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없애주는, 운동을 일상 생활 속에서 사고하도록 해주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한계들은 있다. 글로 줄줄이 쓰여져 있는 수많은 (어쩔 때 너무 길어서 읽기 싫은) 자보들이 얼마만큼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가? 어쩌면 말로만 줄줄이 풀어 놓은 자보들이 여러 다양한 저항의 지점들을 숨기지는 않는가? 무엇인가를 폭로하는 데에 있어서 '언어'라는 방법 밖에는 없는가? 담론 또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말'(자보)이 유일한 매체인가?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방법 - 문화제와 자보 - 가 서로 분리된 채로는 서로

한계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학기에 새로운 실험적(?) 운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새로운 문화'제' - 새로운 자보 '문화'

문화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될 것이며 10월 2째 주 중 사흘 간 치루어질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개막식과 폐막식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을 뛰어넘어 한 학기 동안 지속적인 '문화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일주일 또는 이주에 한번 씩 '자보'를 붙히되 이것은 새로운, 다양한 형식의 자보가 될 수 있다. 예전에 도원이가 시도한 '상상적 글쓰기'가 자보가 될 수 있고, 문화제 때 항상 설치하는 구조물을 또 하나의 '자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만화가 또 다른 형식의 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흘 간에 응축될 행사들을 한 학기 동안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제/자보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이것을 우리의 독특한 운동으로 삼는 것이다.

-학우들과 보다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대학 강좌를 듣는 사람들의 실천적인 활동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운동이 우리가 대중들에게 '요구하는' 형식의 운동을 뛰어넘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아무래도 이러한 시도는 '실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성정치를 하면서 모두 깨달았겠지만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성정치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제' - 새로운 자보 '문화'>도 역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다.

-연고제와 같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하는 행사가 될 우려가 있지만, 또한 단 며칠 동안이라도 성정치가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행사가 분산되면 지속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또한 효과도 분산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운동가들을 볼 때 그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항적일 수 있으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방법들에 갇혀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정치는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보 문화를 창출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어쨌든 함께 얘기해봤으면 좋겠다.